

2023. 10. 10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

교통운영과장	김상신	2133-2450
BRT팀장	조현길	2133-2471
담당자	정삼기	2133-2475
	김윤희	2133-247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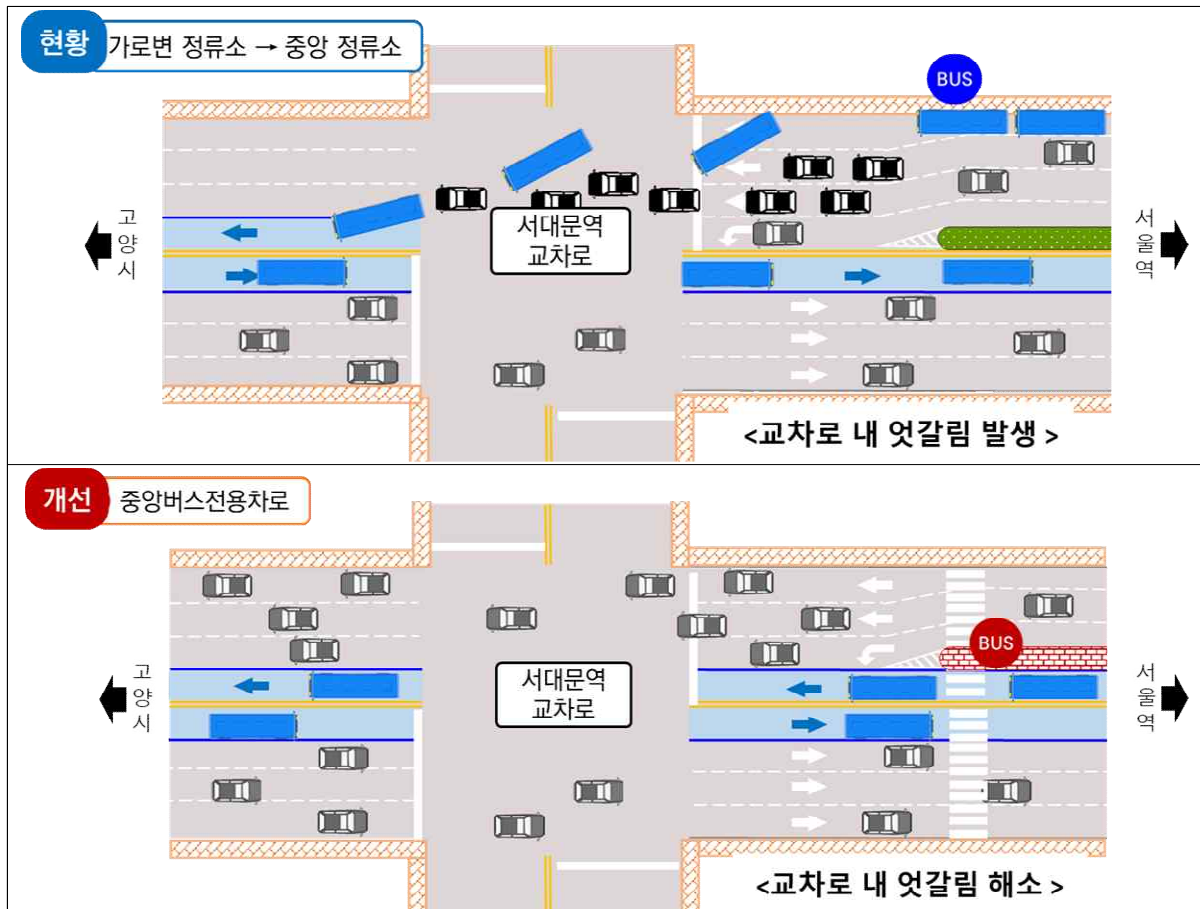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결·서대문역교차로 승용차·버스 엇갈림 개선

- 통일로 염천교사거리~서대문역교차로(0.8km)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착공, 12월 초 개통
- 서대문역교차로 승용차·버스 엇갈림 해소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개선 기대
- 버스 이용 출퇴근 서북권·경기도 인근지역 편의 향상 전망·공사중 차로 안내 확인 등 양해 당부

- 서울시가 도심 내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결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염천교사거리~서대문역교차로 구간 공사를 시행한다. 이에 따라 서대문역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하는 버스-승용차 엇갈림 현상이 해소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.
- 시는 10월 중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염천교사거리~서대문역교차로 외곽방면(독립문)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결 및 중앙정류소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.
- 사업구간 : 염천교사거리~서대문역교차로
(중앙버스전용차로, 중앙정류소 1개소 신설/ 0.8km)

- 그동안 염천교사거리~서대문역교차로(외곽방면) 구간은 중앙버스차로가 운영되지 않아, 서대문역교차로 이전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했던 노선버스가 교차로를 지나며 시작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서 3개 차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이었다.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직진,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버스가 혼재되어 두 차량 모두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, 교통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.
-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게 되면, 서대문역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버스-승용차 간 차량 엇갈림이 해소되어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교통흐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<교통처리 개념도>

- 시는 공사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시간에 공사를 하고,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현재의 차로수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. 다만, 공사중 일부 차로운영이 변경되는 구간이 있어, 염천교사거리~서대문역교차로 구간을 이용하여 출·퇴근하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단절되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연결공사로 버스와 일반차량의 엇갈림이 해소되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해져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북권 및 경기도 인근지역의 교통편의도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 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



<위치도>



〈서대문역교차로 (공사 전)〉



〈서대문역교차로 (공사 후)〉